

漢江의 水上利用을

즉시, 中斷하라!

— 北韓의 「金剛山 댐」 건설과 우리의 對策 —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위원장>

정부는 최근 北韓이 휴전선 북방 10Km 北漢江 상류에 대규모 댐을 건설, 이 물을 元山쪽으로 역류시켜 발전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이 댐이 건설될 경우 萊川방면을 통해 北漢江으로 유입되는 연간 18억톤의 공업 및 生活用水의 공급이 중단되고, 萊川, 淸平, 八堂 등 5개 댐의 發電量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더우기 北韓이 金剛山 발전소의 시설 용량을 80만KW 이상으로 할 경우 댐의 최대 저수 능력은 국내 최대인 昭陽江댐(저수능력 29억톤)의 7배에 가까운 2백억톤에 달해 자연적(천재지변이나 기술적 사고 등)이거나 고의적으로 댐이 붕괴될 경우 20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초당 230만 톤 유하) 萊川 이남 5개 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지난 84년 9월 漢江 홍수때의 200배에 달하는 엄청난 水量이 하류로 유입돼 首都圈 일대를 포함한 漢江 전유역(경

기, 강원, 충청 등)이 물바다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北漢江 물을 역류시키고 거대한 湖水를 건설함에 따라 金剛山, 雪岳山 등 한반도 東部지역의 自然生態系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剛山댐 건설로 우려되는 生態系 파괴는 다음과 같다.

첫째, 氣象異變: 酷寒 등으로 생물 生長에 극심한 피해를 주게 된다.

둘째, 水資源고갈: 水質을 變化시켜, 汚染이 加速化되고, 食水難이 일어난다.

셋째, 漢江水의 流量, 流速의 變化: 金剛山 댐의 關閉에 따라 漢江변의 地型이 크게 변해 生態系 變화를 초래할 것이며, 富榮養化, 土質變化 현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生態系 파괴가 일어난다.

1. 당장 中斷해야 될 漢江水上 이용

漢江은 우리국민 3분의 1의 食水源이며 國家發展의 에너지源이다. 그래서 漢江을 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나라가 富強할 수 있다고 筆者는 기회있을 때마다 목청을 돋구어 호소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당국은 漢江을 안이하게 評價해 漢江의 治水 문제에 대하여는 기껏 보기 좋은, 당장 有用한 측면에서만 힘을 기울여 왔다.

즉, 漢江의 安保的, 國家發展的 차원보다는 쉽게 利用할 수 있게 또, 그럴듯 하게 보이는 일에만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이야기다.

더도 말고, 단 4년간의 손질로 漢江이 살아났다고 하는 「漢江綜合開發工事」의 경우만 보더라도, 漢江의 水上利用 즉, 오락 위주의 漢江에 관심을 두었을 뿐, 國家百年大計의 治水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漢江이 되살아났다고 한 지난 9월 10일 이후 두 달도 채 안된 지난 10월 28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10단 머리기사를 보자.

“한강시민공원이 개방된지 한달, 보름도 넘지 못해 벌써부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행주대교~암사동 구간 36Km의 올림픽대로 주변 한강고수부지에 조성된 한강시민공원은 요즘 각종 체육 및 편익시설이 파손되고 잔디가 마구 밟혀 죽는가 하면, 낚시터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일부 지각없는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한강시민공원을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26일 오후 1시쯤 서울 잠실대교 남쪽 잠실지구 시민공원 2백여명의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주위엔 라면봉지, 깨진 소숫병 등 각종 쓰레기와 깨진 블록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강물엔 이들이 미끼로 던진 갯목 닭사료 등 부유물이 둥둥 떠다녔다.

낚시터주변 제방 곳곳엔 일부 낚시꾼들이 블록을 깨뜨려 낚시받침대나 의자대용 깔판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군데군데 블록이 빠져 있었으며,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10cm, 크기의 지정

받침대 1백여개 중 10여개가 물 속에 빠져있거나 반토막이 난 상태였다.

이 같은 실정은 잠원, 반포, 풍납, 이촌지구의 지정 낚시터도 마찬가지.

각종 체육시설이 훼손된 곳도 많았다. 농구골대의 링그물은 잠원지구 6개, 망원지구 4개 모두, 반포 지구는 6개 중 5개가 뜯겨져 너덜거렸다. 여의도 체육공원의 합성수지로 된 테니스 코트 울타리용 그물 20여군데가 찢겨진 상태였다. 이용자들이 출입구를 통해 공을 주우러 가지 않고 그물의 찢기거나 구멍난 부분을 통해 다니기 때문에 더욱 구멍이 넓어지고 있다.

각종 편익시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망원지구의 쓰레기통 15개 중 4개는 찌그러져 사용할 수가 없었고, 20여 개의 벤치 중 7~8개가 받침대 등이 부러지거나 칼로 새긴 낙서로 흉한 모습이었다.

양화지구의 농구장에 설치된 음료수대의 수도꼭지 8개중 5개는 이미 없어져 버렸으며, 축구장 음료수대의 수도꼭지도 8개 중 4개가 망가졌다고 흥분했다. 잔디밭은 더욱 형편이 없었다. 한강시민공원 13개 지구 2백 10만 평 중, 잔디밭 등 자연녹지는 55%인 1백 15만 5천 평인데, 절반정도는 지난 여름 씨앗을 뿌려 잔디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라 곳곳에 나일론 줄을 치고 「출입통제」 팻말을 달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두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마구 줄을 끊고 출입을 하고,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주차장으로 사용, 잔디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잠원지구와 천호지구의 경우 잔디 6만여평과 1만여평 중 각각 40%가 여의도지구는 1만여평 중 35%가 잔디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발아가 잘 못된 탓도 있지만 몰지각한 시민들이 밟고 다니거나 승용차를 세워 두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관리인들은 말한다. 여의도지구의 경우 씨를 뿌려 돌아난 잔디를 잘 기르기 위해 스프링클러 16개를 설치했으나 이 중 4개는 설치한지 보름도

안돼 망가져버려 잔디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8일에는 「새한강 1호」라는 유람선이 運航 4일만에 양화大橋 교각을 들이받아 승객 12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등, 이래저래 漢江의 水上利用에 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니,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北韓이 北漢江 상류에 위협적인 대규모 「金剛山 댐」을 건설하고 있는 이때, 유람선이나 띄우고, 낚시질이나 하는 한가한 짓은 즉각 中斷되어야 한다.

2. 나라를 지키는 治水 계획을

漢江은 國家興亡의 보루이며, 國民生死의 첫줄이다.

따라서 漢江의 治水문제는 그 무엇에 앞서 중요한 일임을 自覺해야 한다. 利用에 불편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漢江의 治水가 중요하고, 그럴듯 해 보이지 않아도 백성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漢江의 治水가 중요하다.

北韓의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金剛山 댐」의 목적을 안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漢江을 安保的으로, 國家發展的으로 治水하는 길 뿐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漢江의 水上利用 따위는 집어 치우고, 漢江 上流 곳곳에 대규모 방어용 댐을 구축하여 홍수, 저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2백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올 때를 대비하여 漢江水系에 대규모 人工運河를 건설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또한, 그 運河로 工業과 農業用水를 이용하는 長期的인 안목의 지혜도 짜야 할 것이다.

즉, 安保的인 차원의 漢江治水와 安全한 食水의 공급차원의 漢江治水 산업이 長期的인안목에서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漢江이 安保的으로도 生態學的으로도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게시판

■ 환경문제 상담실 운영

본 연합회에서는 환경문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장내에서의 환경문제나 기술, 권익, 법률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나 편지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회에는 각종 환경분야 서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서적이 필요하신 회원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환경관련업체 소개책자 비치

본 연합회 사무실에는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회사 안내 책자 및 카다록을 비치하여 환경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관련업체의 호응과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관리인 취업정보

최근 본 연합회로 환경기사를 원하는 업체들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기사(수질 1,2급 대기 1,2급)가 필요한 업체는 계속 연락을 바리며 아직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환경기사들은 본 연합회로 신청을 하시면 빠른 정보와 구의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